‘애국심 중요하다’는 미국인 38% 불과

▲ 미국인들의 38%만이 가장 중요한 가치로 '애국심'을 꼽았다. 사진=shutterstock

미국인들이 '애국심' 이나 '종교' 같은 전통적 가치에 등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8일 '연합뉴스' 에 따르면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날 시카고대학 여론조사센터(NORC)와의 공동 조사에서 미국 사회의 변화가 확인됐다면서 이같이 보도했다.

WSJ와 NORC는 지난달 1일부터 13일까지 미국인 1천10명을 상대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졌다. 이에 대해 '애국심' 을 꼽은 응답자는 38%에 불과했다. 1998년 같은 여론조사에선 애국심을 선택한 응답자가 70%였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25년 만에 반토막이 난 셈이다.

특히 30세 이하 젊은 층 응답자 중에서 애국심을 지목한 비율은 23%로 더 낮았다. 반면 65세 이상 노년층에선 애국심을 꼽은 비율이 59%였다.

'종교' 가 중요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39%였다. 1998년 여론조사에서 중요한 가치로 종교를 꼽은 응답자는 62%였다. 역시 젊은층 응답자는 31%만 종교가 중요하다고 답했고, 노년층은 55%로 종교에 대한 평가가 높았다.

'자녀 양육' 이 중요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같은 기간 59%에서 30%로 줄었다.

또한 '공동체 참여' 를 꼽은 응답자는 2019년 조사에선 62%였지만, 올해 조사에선 27%로 급감했다

가장 중요한 가치로 '돈' 을 꼽은 응답자는 늘어났다. 지난 1998년 조사에서 돈을 선택한 응답자는 31%였지만, 올해 조사에선 43%로 늘었다.

“정치적 성향이 연애 조건 돼”

상대방을 적으로 보는 극단의 정치가 일상화하면서 미국 남녀들이 짝을 찾는 과정에서조차 '정치적 성향' 이 갈수록 중요한 조건으로 부상하고 있다.

▲ 미국 남녀들은 '정치적 성향'을 연애의 중요 조건으로 보고 있다. 사진=shutterstock

지난 27일 '연합뉴스' 가 미국 정치전문매체 더힐을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네바다 대학의 커플·가족상담 전문가인 바이다 카플라우스카이테 교수는 남녀가 데이트 중 정치에 대한 대화를 나누는 시점이 빨라졌고 만남을 이어갈지를 정하는 데도 영향을 미치게 됐다고 말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밝히는 행위는 데이트가 그대로 끝장나는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미국 연구단체 '미국인의 삶 조사 센터' (SCAL)의 대니얼 콕스 국장은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정말로 데이트를 망칠 사안이랄 것이 극히 적다." 면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는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이 상당수라고 말했다.

더힐은 "정치가 갈수록 데이트 성공에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고, 특히 여성이 그런 경향이 강하다." 고 짚었다.

이러한 차이의 배경으로는 2018년 전세계를 뜨겁게 달군 미투 운동과 2022년 낙태할 권리를 인정한 '로 대(對) 웨이드' 판례를 공식 폐기한 미 연방대법원 결정 등이 꼽힌다. 일련의 사건을 겪으면서 미국의 젊은 여성들이 과거보다 자유주의적이고 진보적인 입장을 갖게 된 반면, 미국 남성들은 그런 변화를 겪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총격 사건 사용 총기 80% ‘합법적’

미국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의 약 80%에 합법적으로 판매된 총기가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 미국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의 약 80%는 합법적으로 판매된 총기가 사용되었다. 사진=shutterstock

지난 29일 '연합뉴스' 는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를 인용해 미 법무부 산하 국립사법연구소(NIJ)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966~2019년 미국에서 4명 이상의 사망자가 나온 총기 난사 사건을 분석한 결과 범인의 77%가 합법적으로 구매한 총기 최소 1정을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불법적으로 구매한 총기를 범죄에 사용한 경우는 13%에 불과했으며, 가족 등 지인의 총기를 훔쳐 총기 난사를 벌인 경우도 있었다. 특히 중·고등학교에서 범행을 벌인 총기난사범의 80% 이상은 가족 소유의 총기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NIJ는 이마저도 전체 총기 난사 사건의 32.5%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지 못한 수치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 27일 내슈빌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과 교직원 등 6명을 총격 살해한 용의자는 이번 사건에 사용한 총기 3정을 포함해 총 7정을 합법적으로 구매해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총기 폭력을 집계하는 '총기 폭력 아카이브' 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올해 발생한 129번째 집단 총기 난사 사건이다.

낱말퍼즐 정답

■	1 여	■	2 탐	■	3 모	닥	불
■	4 삼	인	조	■	꼬	■	■
5 격	추	■	6 등	7 대	지	8 기	■
전	■	■	■	기	■	9 기	10 밀
11 지	12 금	■	13 불	■	■	■	반
■	14 여	15 유	만	16 만	■	17 유	출
■	■	망	■	18 국	방	부	■
19 구	단	주	■	기	■	남	■

1466호 숫자퍼즐 (이번호 정답은 P51에 있습니다)

3			7	9			5	
2						3	7	
	6		2		4			
				1	9	7		4
	3	4						5
			4		5		2	
						2	1	8
	2	3		7				
4	9		1	6				